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심버타임즈 편집인

지난 8월 30일 방영된 KBS2의 '추적 60분'에서는 '꽃동네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웅진 신부의 '꽃동네'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쳐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적 60분'은 8월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는 모습과 8월 6일 서울 명동 성당 앞에서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장면으로 우선 꽃동네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오후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았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희망의 집'. 이곳에서 교황은 중증 장애인과 어린이들을 만나 손을 어루만지고 께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불러 넣어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광경은 많은 국민들에게도 감명 깊었으며 꽃동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하였다. 그렇지만 30일 '추적 60분'을 보면서는 꽃동네의 '복지사업체로서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충북 음성과 경기도 가평 2곳의 수용인원만도 4000명에 달하는 '꽃동네'는 국내최대의 사회

'영적 웰빙' 아닌 '맑은 가난'을 생각하라

복지 시설이다. 1976년 고 최귀동 할아버지와 오웅진 신부의 만남에서 시작된 '꽃동네'는 오랜 세월 '사랑과 봉사'의 상징이 되어왔다. 그런데 1998년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 됐다. 토지의 불법사유화와 논란과 제기된 횡령과 배임이라는 혐의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2003년 6개월 수사 끝에 발견된 꽃동네 부동산은 312만평, 여의도의 3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었다. 수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07년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지만,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고발과 함께 꽃동네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추적 60분' 제작진이 건국대 부동산 도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꽃동네 매입토지는 550억원 정도의 가격 수준이고 또 여러 명의를 가진 토지가 비슷한 날짜에 천주교 청주교구로 근저당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곳은 오신부가 30%의 지분을 가진 영리재단이고 특히 대표권은 오 신부에게만 주어졌다. 재벌닷컴 정성섭 대표는 "종교단체에서 대표권 제한은 이례적이다. 내부 이사의 운영확인을 차단한 것"이라 지적, 이 재단이 내막적으로는 오 신부의 것으로 사유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월호 사건이후 구원파 유병언의 부동산 매입과 차명등기, 근저당 등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종교단체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끊임 없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꽃동네는 국고의 복지지원도 많다. 충북 음성군에서 복지예산 960억원 중 26%인 255억, 경기도 가평군에서 복지예산 719억원 중 20.4%인 148억이 꽃동네로 지원된다. 두 곳의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연간 400억 원이나 된다. 주민들은 꽃동네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두고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과 후원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아차렸음인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6일 꽃동네에서 열린 4000여 수도자와의 만남에서 "청빈(淸貧) 서원을 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봉헌된 사람들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친다"고 했다.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창하는 것은 법정스님의 말씀대로 '맑은 가난'이 어떠한 부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부패와 부정은 필요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갖는 데서 비롯된다. '맑은 가난'은 바로 '청빈'이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오늘날 너무 물량화(物量化) 되었다. 신부가 사재를 탐하고, 목사가 교회 돈을 부당하게 쓰고 또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세습을 일삼으며, 스님이 윤선거, 도박 논란의 작태를 보이니 모두 돈이 종교로 물리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돈에 물들어 타락하면 가난한 민초들은 찾아갈 법당이나 교당이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한국의 모든 종교가 깊이 새겨야 할 금언이다. "영적 웰빙에 빠지지 말라. 번영할 때 유혹이 온다. 잘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가난을 창피하게 여기게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번영, 영적 웰빙의 유혹이다. 그러면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없다. 반대로 부자들을 위한 부자교회, 중산층을 위한 교회가 된다." '맑은 가난', 이것이 우리 불교 교단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 좌표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내 한인 중 71%가 기독교를 믿었고, 이중 61%가 개신교를 믿었고, 이 중 23%보다도 적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미국 한인 사회의 개신교와 불교는 10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은 재외 동포 포교에 있어서 타 종교에 비해 목적, 양적으로 모두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불교로서 불자들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불교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타종교에 비하여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민 포교 사례는 주목할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 내 아

社說

선지식의 탈종 선언과 법인관리법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했다고 한다. 송담 스님은 '남진제 복송담'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평가받는 조계종의 큰 어른이다. 그런 스님이 종단에 희망이 없으면서 탈종을 선언했다. 상좌들에게는 불이익이 예상되면 잔류하고 다른 스승도 알아봐주겠다고도 했다. 스님의 탈종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법인 등록을 반발한데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 용주사 주지 선거의 유시 논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송담 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법보선원 이사회가 종단 법인 등록 거부로 결의하자 이에 동의했고, 이후 탈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 최고 선지식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

은 법인관리법 시행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계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사찰 법인과 사찰 보유 법인을 종단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인관리법은 전신인 법인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다. 12일 이사회를 통해 등록 거부로 재확인한 선학원과 같은 종소 법인들과의 행정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여기에 종단 최고 선지식이 법인관리법을 반기하며 탈종을 선언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법인의 사유화를 막고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관리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 일선 법인과 맞바탕을 수 있는 마찰 등을 최대한 시물래 이법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최소화해야 했다. 선지식을 탈종에 이르게 한 법인관리법, 종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 한인 포교, 독일을 롤모델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재미 교포들의 기독교화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기독교와 불교의 격차가 너무 심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내 한인 중 71%가 기독교를 믿었고, 이중 61%가 개신교를 믿었고, 이 중 23%보다도 적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미국 한인 사회의 개신교와 불교는 10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은 재외 동포 포교에 있어서 타 종교에 비해 목적, 양적으로 모두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불교로서 불자들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불교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타종교에 비하여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민 포교 사례는 주목할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 내 아

시에게 불자 그룹 중 세 번째로 큰 한국불교는 독일 교민 중 31%를 불자로 만들었다. 만프레드 후터 독일 분대학 아시아연구소 학장은 이런 성공 요인이 한마음선원과 베를린 국제선원, 독일 관음선종 등 3개의 한국 사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독일 지원은 매해 가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참여하며 방문자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고 정기 법회를 통해 자국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후터 소장이 설립한 관음선종은 정기적 용맹수행으로 서구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일선 사찰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노력이 독일 포교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는 한인 포교에 기반한다. 불자 재외 교포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등 공신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 포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발언대  
인천아시아경제인 서포터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인천 자비나눔 공동체 불자 서포터즈 단원들은 선수단과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단원들의 포부와 다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한국인의 따뜻한 情 느끼게 해주교과



양미선  
인천 자비나눔공동체 불자 서포터즈 단장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장 종호 스님과 인천불교조계종총연합회장 종연 스님, 고문 선일 스님을 비롯한 인천지역 조계종 사찰 스님들이 인천 자비나눔공동체 불자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단장으로서 그리고 신도 입장에서 최대한 스님들의 지시를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포터즈 회원들은 △불자 선수 응원 △내외국인 안내 △불교국가 선수 응원(비인기종목) △지역 봉사활동(터미널과 항만 등 안내, 환경정비 등) △불교 국가 선수단을 위한 불교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시아게임을 위해 참가한 해외 선수들이 불교를 접하고 사부대중의 기도와

인천 불교 활성화에 기폭제 될 '서포터즈'



김기호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지역지부 단장

인천 자비나눔공동체 불자 서포터즈의 결성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 불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불교세가 열악한 인천 지역에 새로운 포교를 열어가야 할 구심점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아시아게임에서의 봉사는 지역 복지관들과 연계해 활동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 외국인선수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9월 13일 개원과 동시에 공개되는 불교 종교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가국 중 불교국가가 많은 만큼 이곳을 찾는 외국인선수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호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학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학인천역집 I·II·III'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교교미필자·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절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친정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공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방법으로 일생 운영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찻는가? 배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애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신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운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마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 ⑤ 육임부동산매매시(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따)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입니다.
-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9시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아내 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호사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